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1 - 64 - 230호(사건번호 : 201103조사016)

안 건 명 (주)비엠비의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주)비엠비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418-6

대표이사 이홍래

의결연월일 2011. 11. 23.

주 문

1. 피심인은 정보이용 안내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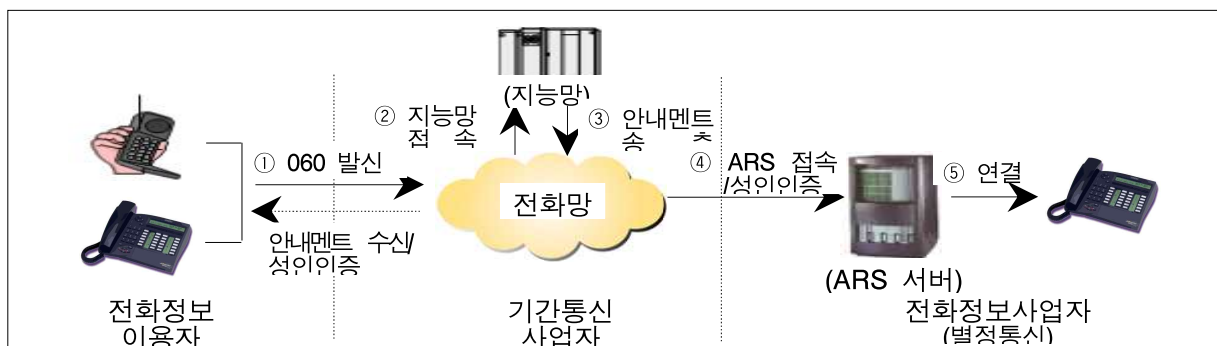
다. 전화정보서비스 개념

- 전화정보서비스는 전화정보사업자가 서비스에 필요한 ARS장비 등을 자체 설치하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060회선)을 임차하여
 - 음성채팅, 증권정보, 스포츠정보, 경마정보, 운세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서비스 이다.

< 기간통신사업자별 060 식별번호 >

LG U+	KT	SKB	온세텔레콤	SK텔링크	비고
60Y	70Y	80Y	90Y	300	Y : 0~9의 숫자

- 서비스 이용방법은 전화정보이용자가 유·무선전화로 060 번호에 전화하면, 기간통신사업자의 전화망 및 지능망을 거쳐
 - 전화정보사업자의 ARS 장비로 접속된 이후 정보이용 안내와 성인 인증(주민번호 입력) 절차가 완료되면 해당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 정보이용 안내사업자 변경('11. 3월) : 전화정보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 한편, 전화정보이용시 이용자에게는 부과되는 이용요금(정보이용료 및 통화료)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고지서에 통합 청구되며
- 전화정보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수납된 정보이용료의 10%를 회수대행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나. 피심인의 전화정보서비스 일반현황

-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의한 별정통신사업자로서 '10년도 전화정보서비스 매출액은 156백만원 이다.(서비스개시일 '10. 6. 1)

< 피심인의 전화정보서비스 매출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2011. 1월	2월	3월	4월	5월
매 출 액	156	29	44	49	80	99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 피심인은 기간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회수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 SK브로드밴드로부터 총 115개의 060 번호를 음성채팅 용도로 부여 받았고, 30초 당 290원의 정보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 피심인의 전화정보서비스 제공현황 >

관련 기간통신사	서비스개시일	060 번호수	비 고
SK브로드밴드	2010. 6. 1	115개	음성채팅

나. 피심인의 060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규정에 대하여

- 피심인은 060번호를 부여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체결한 회수대행 계약(이하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은 SK브로드밴드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을 그 계약 내용으로 편입하고 있다. (전화정보서비스 계약 제2조)

※ 전화정보서비스 계약서 제2조(정보제공내역 및 회수대행 수수료) ① 전화정보 번호부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전화정보서비스이용약관”에 따른다.

○ SK브로드밴드의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은 ‘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정보의 서두부분에 정보이용료(단위시간 및 요금), 정보유형별 특수한 사항, 제공 정보명 등의 정보 이용안내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 제5조 제3항)

- 피심인은 ‘정보유형별 특수한 사항’으로 미성년자의 이용제한을 위해 성인인증을 하고 있다.

○ 또한, 정보의 이용안내 및 성인인증에 필요한 일정시간은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규정하고 (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 제14조 제5항)

- 정보이용료가 공제되는 시간(이하, ‘공제초’)은 최소 40초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이용약관 제3조의 위임에 따른 ‘전화정보번호부여및번호관리지침’ 제15조)

※ SK브로드밴드의 이용약관 제5조(서비스 제공) ③ 정보제공자는 060서비스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필수사항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1. 정보제공자 2. 정보제공명 (또는 정보제공 형태)

3. 정보이용료 (과금단위 및 요금), 4. 이용종단 안내

5. 문의전화 번호 6. 과금 개시음(“삐”)

7. 정보 유형별 특수한 사항(미성년자 이용제한 등의 특수한 안내 사항)

⑤ 정보의 특수성으로 이용안내에 장시간(1분이상)이 소요되는 경우, 별도의 이용 방법을 무료로 안내하여야 한다

※ 전화정보서비스 SK브로드밴드의 번호관리지침 제15조(실시간서비스 이용자 보호) 이용자의 비정상적인 정보이용료 부담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여야 한다.

1. 실시간 상담형서비스의 경우 통신회사 과금 개시 등록은 40초 이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아울러, 피심인의 '060전화정보서비스 이용약관' 제6조에 서비스 이용 시 초기 안내문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회원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규정하고

※ 피심인의 이용약관 제6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단위)

1. 이용계약은 이용회원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가입한 경우는 이용 약관을 고지한 후 이용회원이 동의 하였을 경우, 전화 접속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초기안내문을 청취 후 동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 동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서비스 명칭, 요금, 주민 번호 확인, 이용자번호 등을 인식시키고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피심인의 이용약관 제9조)

※ 피심인의 이용약관 제9조(이용신청의 승낙) 2. 회사가 이용신청을 승낙하는 때에는 다음 각 사항을 이용회원에게 인식시키고 동의를 얻은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 제공 서비스의 명칭
- 나. 서비스 요금 등에 관한 사항
- 다. 이용회원의 불만 처리를 위한 방법
- 라. 이용회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 마. 이용자 번호 및 비밀번호의 확인

2. 사실조사 결과

가. 방통위 모니터링 결과

- 방통위에서 '11.2.15.~3.14. 기간 동안 방통위 CS센터 민원, 광고문자 등을 통해 확인된 성인대상 060 번호 710개에 대해 1,402회 정보 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여부를 전화녹취하면서 모니터링한 결과,
- 총 35개 전화정보사업자의 677개 번호가 1,029회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절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 전화정보서비스 관련 모니터링 결과 >

모니터링 내역		모니터링 결과(미실시)			비 고
060 번호수	횟수	안내, 성인인증	성인인증	계	
710개	1,402회	520회	509회	1,029회	미실시 업체 : 35개

- 이중, 20회 이상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15개 정보제공사업자를 사실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o 피심인의 경우 피심인이 운영하는 115개 060 번호 가운데 18개 번호에서 23회 성인인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 피심인의 060 번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

관련 기간통신사	모니터링 번호수	모니터링 결과(미실시)		
		안내, 성인인증	성인인증	계
SK브로드밴드	18개	-	23회	23회

나. 현장조사 결과

- o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1. 5. 23~7. 8일 기간동안 피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10. 1월~'11. 3월 기간중 정보이용 안내 및 성인인증 실시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 o 방통위 모니터링 기간동안 ('11.2.15.~3.14.) 성인인증을 미실시한 피심인의 18개 060번호에 대한 당시 전산자료는 확보할 수 없었고, 피심인은 '모니터링으로 이용한 이동전화번호가 회원으로 등록'되어 성인인증이 제공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o 피심인은 최초 성인인증을 거쳐 피심인의 서비스를 이용한 3,650명 이용자에 대하여 별도 동의절차 없이 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 이 전화번호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

< 성인인증 없이 정보를 제공한 횟수 >

구 분	1~20회	21~50회	51~100회	101~200회	201~500회	501~1,000회
회원수	1,830명	1,160명	380명	230명	40명	10명

※ 자료 출처 : 피심인의 제출자료(기간 : '10. 1 ~ '11. 5월)

3. 위법성 판단

가. 관련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는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관련 법규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4. 생략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나. 금지행위 위반 여부

- 최초 성인인증을 거친 이용자의 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자 동의 없이 ‘회원’으로 관리하면서 그 전화번호로 다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성인인증 절차를 생략하는 피심인의 업무처리절차는

- 성인 명의의 전화를 미성년자가 이용할 경우 이를 차단하는 수단이 없어져 해당 전화 명의인에게 불측의 요금을 부과시키고, 미성년자 등 불특정 다수가 성인정보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 해당 이용자에게 광고성 스팸발송 등 이용자의 통신이용에 지속적인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4. 피심인 주장

- o 매번 성인인증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접근성과 효율성 제공을 위한 선의의 조치였음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 방통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람

5. 시정조치 명령

가.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정보이용 안내 절차를 생략하거나 성인인증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의거,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4단×10cm 또는 5단×9cm의 크기로 1개 중앙일간지에 평일에 1회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의거,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8. 결 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동 법 제52조, 제53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1. 11. 23.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최	시	중	(인)
	부위원장	홍	성	규	(인)
	위 원	김	충	식	(인)
	위 원	신	용	섭	(인)
	위 원	양	문	석	(인)